

## 말레이시아에 원전 수출 터 닦았다



- 이명박대통령 · 라작 총리 정상회담
- 차세대 에너지 · 핵폐기물 처리 등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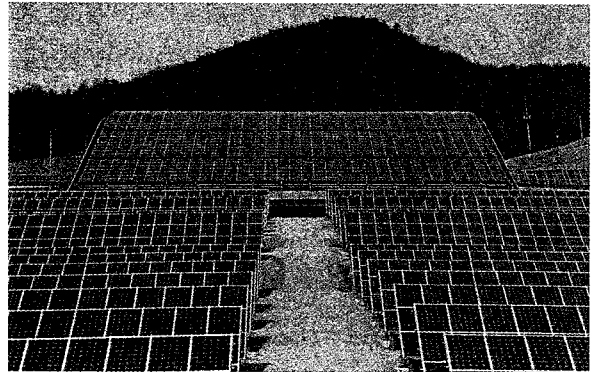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10일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나집 툰 라작 총리와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토대를 깔았다.

두 정상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반자 관계 강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원자력이 안전하고 오염을 덜 유발하는 에너지원이라는 데 공감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더욱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선택한 말레이시아는 2012년 원전 건설 및 기종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원전 거부감 해소 방안, 핵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협력을 한국과 진행하기로 했다.

## 태양광 매출 5조 원 넘었다



- 5년 만에 80배나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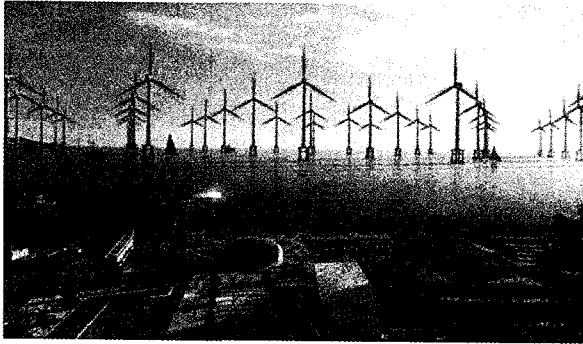
태양전지 · 폴리실리콘(태양전지의 원료) 등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 매출이 올해 5조 원을 넘어서며, 5년 전과 비교해 80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19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태양광 산업 매출은 5조 3700억 원으로, 2005년 667억 원과 비교해 무려 80배나 커졌다. 지난해 2조 3800억 원과 비교해도 2.3배 늘었다.

올해 태양광 산업의 매출 가운데 수출액은 33억 8000만 달러(약 3조 7754억 원)로 전체 매출액의 70.3%를 차지했다. 수출액 역시 2007년에 비해 19.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양광 산업 매출은 풍력 · 지열 등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체 매출액 8조 699억 원의 약 6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 산업이 석탄 · 석유를 대체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제주해안 해상풍력단지 국내 최대 102MW급 조성



### - 민·관 공동수익사업 추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제주도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13일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개발·설치 및 전력생산·판매를 미래프로젝트로 정하고, 연구개발 업무 등을 맡게 될 풍력발전단지를 제주해상에 조성하기로 한국전력기술(주)과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이 구상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3MW급 발전기 34기를 설치, 총 발전설비용량 102MW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국내에서 해상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두 기관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4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주)이 주관이 돼 국내 공기업, 풍력발전기 제조사, 대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또 34기의 발전기 가운데 4기는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 기업이 개발하는 신제품으로 충당한다. 이럴 경우 제조 업체는 제주 앞바다에서 실증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이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29만 5000MWh의 전력을 생산해 도내 총 전력소비량의 9%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649억 원의 전력판매 수익과 20만 721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했다. 장기적으로 유엔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 온실가스배출권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 2024년까지 원전 14기 신설...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 31%로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4기가 신설되고, 석유의존도는 2030년까지 31%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전력거래소는 지난 12월 7일 지식경제부 주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안,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등을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 4차 계획이 마련됐지만, 에너지 수급상황 변화로 5차 기본 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빨리 제시됐다.

계획안은 원자력설비 비중을 올해 24.8%에서 2024년 31.9%까지 확대하고 발전량 비중도 48.5%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원전 14기가 추가 건설되며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각각 13기, 19기 추가 건설된다. 필요한 예산은 44조 원으로 집계됐다.

계획안은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31%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2%로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총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수요는 2016년까지 연평균 3.7%씩 늘다가 2017년 이후엔 증가율이 연평균 1.1% 이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27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제1회 원자력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고중명 전 한국전력 이사 등 UAE 수출 유공자를 포함해 20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고 전 이사와 심창생 전 한전 본부장 등 5명은 원전 수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한필순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원자로 기술자립에 대한 유공으로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수상했다.

한국전력공사와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3개 기관에는 대통령 기관표창이 돌아갔다.

이번 원자력의 날 제정으로 9월 10일에 열리던 원자력 안전의 날은 폐지됐다.



## 제1회 원자력의 날 기념식 개최



- 해외원전 추가 수주 등 새로운 도약 결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을 기념하기 위한 '원자력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